

# 與 당당한 광주행 발걸음... 국민의당 “미워도 다시 한번”

## 5·18 기념식 지도부 총출동 호남민심 잡기 2라운드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호남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다시 야권 텃밭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번 대선 결과 호남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기회로 '호남 맹주' 자리를 굳히는 모양새고, 대선에서 패배해 1년 만에 '안방'을 민주당에 내준 국민의당은 5·18 전야제와 기념식을 맞아 광주에 총집결해 텃밭 민심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게 되면서 면(面)이 단단해졌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 듯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8일 열리는 5·18 기념식에 총출동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전야제에도 참석하는 등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도 기념식 참석을 위해 대거 광주를 찾는다.

이번 기념식에서 당 지도부는 호남이 바라는 정권교체를 이룩한 정당으로서 새 정부의 개혁과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37주년을 맞아 진실 규명 등 관련 정책도 오히려 내놓고 있다.

추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에서 "선량한 국민을 향한 군의 총기 사용은 끝까지 추적해야 할 역사적 범죄로, 5·18 정신의 헌법수호와 특별법 제정에 착수해 진실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넘어 공식 기념곡 지정 추진을 위한 관련법 제정 등을 강조

### 민주당, 대표·원내대표에

### 박원순·안희정까지 참석

### 텃밭 맹주 자리 굳히기

### 국민의당, 전의원 총집결

### 안철수 기념식 참석

### 안방 민심 되찾기 총력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권교체 이후 첫 5·18 기념식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대선 승리를 계기로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맹주 자리'를 굳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올라섰지만,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참패를 당하면서 원내 1당으로서 체면을 구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당과 호남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다.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면 당장 당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필사적인 구애 경쟁을 벌인 것이다.

◇국민의당=대선에서 참패한 국민의당은 제37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부터 광주에 총집결하고 있다. 대선 패배의 충격으로 흔들리는 당을 추스르고 당의 정신적 기반인 호남에 '미워도 다시 한번'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다. 새로 선출된 김동철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

부는 이날 오후 4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유동사거리와 금남로 일대에서 각각 열리는 민주대행진과 전야제 행사에 합류해 시민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혔다.

18일 오전 본 기념식에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도 당 지도부와 함께 참석해 영령들의 넋을 기린다. 이틀간 행사에는 당 소속 의원 40명 가운데 해외출장 중인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제창하게 한 것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에 대해 평가한다"라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공약도 지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연호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6월 임시국회에서 '5·18 헬기사격 특별법'을 1호로 통과시키고 여야 각 당에 공개 제안했다.

국민의당이 이처럼 5·18을 기리는 데 공을 들이는 건 민심 이반을 피부르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호남 민심은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진원지가 돼 호남 지역구 28석 중 23석을 국민의당에 안겨줬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60% 이상의 득표를, 안철수 후보는 30%대를 얻는데 그치는 등 민심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호남은 역대 대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통해 한 후보에게 몰표를 줬지만, 이번에는 국민의당에도 30%의 지지를 주셨다"며 호남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은 정권교체가 시급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면서 우리 우리가 제기한 변화와 미래, 혁신의 가치에 공감한 것"이라며 "낙관하기도 이르지만 비판하기도 이르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이처럼 5·18을 기리는 데 공을 들이는 건 민심 이반을 피부르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호남 민심은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진원지가 돼 호남 지역구 28석 중 23석을 국민의당에 안겨줬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60% 이상의 득표를, 안철수 후보는 30%대를 얻는데 그치는 등 민심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호남은 역대 대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통해 한 후보에게 몰표를 줬지만, 이번에는 국민의당에도 30%의 지지를 주셨다"며 호남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은 정권교체가 시급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면서 우리 우리가 제기한 변화와 미래, 혁신의 가치에 공감한 것"이라며 "낙관하기도 이르지만 비판하기도 이르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7일 광주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 행복을 지켜주는 새 정부’ 기대



김은영의 '그림 생각' (184) 행복

인간이 살아가면서 바라는 궁극의 목표는 행복한 삶일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은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와 같은 장삼이사들에게는 일상을 소소한 기쁨으로 채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만 같다. 거기에 먹고 사는 것이 충족되고, 마음이 평온하여 일상의 질서까지 더해질 수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겠다.

‘인류의 스승’이라 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천 년 전 이미, 그의 도덕 철학에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한 삶’이라는 명제로부터 출발함을 일깨웠다. 그는 행복을 얻는 길을 중용에서 찾기도 했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사

회적 정치적 차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은 그의 국가관, 즉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발전과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국민 행복이 정부의 존재 가치”라 한 새 대통령의 신념에 거는 기대와 맞닿아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라파엘로(1483~1520)가 바티칸궁에 그려낸 ‘아테네 학당’(1509년 작·부분)은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플라톤과 오른 손으로 땅을 가리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고대 철학자들과 현자들이 함께 자리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인물들의 몸짓은 모두 그들의 작품이나 사상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인류의 진리에 대한 추구와 열망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로 묘사된 플라톤은 머리 왼쪽에 추상적 형이상학에 관한 저작인 ‘티마이오스’를 끼고 오른 손은 더 높은 차원의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을 손에 든 채 무엇을 하든 땅에 발



라파엘로 작 ‘아테네 학당’

을 붙이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다. 철학사 전체에 걸쳐 갈등 관계를 유지해 온 이상과 현실이라는 대립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과제인 것 같다. 우리 손으로 뽑은 지도자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조율하면서 부디 스스로 설정한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정부’를 만들어주길 기대해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 文대통령 내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병헌 청와대 정부수석은 지난 15일과 17일 잇따라 여야 원내 지도부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최종적으로 국민의당이 오찬 회동에 응하기로 하면서 회동이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여야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회동에서는 청와대와 국회 간 협치를 비롯해 문재인 1기 내각 인사정문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북핵 위기 대응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우선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원내대표들을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금요일 오찬으로 잡았다”며 “의제에 대해서 특별히 한정된 것 없이 현안 전체를 논의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실무준비단을 꾸려 청와대 오찬에서 예상되는 논의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은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의 첫 상견례이기도 해서 관심이 모아진다. 우 원내대표가 당정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수직적 당정

관계는 지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회동을 통해 향후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밀월관계’의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국회와의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자주 만나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소통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만남을 자주 가지며 공감대를 높여야만 야당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진다”며 “회동 정례화를 건의할 생각이 있다. 꼭 정례화가 아니더라도 모임을 더 자주 하도록 확대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첫 여성 보훈처장 피우진 “‘임 행진곡’ 씩씩하게 부를 것”

국가보훈처 사상 첫 여성 처장에 임명된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17일 “저는 애국가도 씩씩하게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씩씩하게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피 보훈처장은 이날 청와대 인사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피 보훈처장은 또 “제가 생각하는 보훈정책은 보훈 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이라면서 “보훈 가족 중심으로 보훈정책을 앞

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훈은 안보의 과거이자 미래”라면서 “지금 보면 보훈 가족들이 다소 소외감도 느끼고 자기들이 잊혀지지 않나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www.joytour.kr](http://www.joytour.kr)

# 무안출발 일본여행

이 가격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미친 특가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발하는 일본여행  
이제 무안에서 출발하세요~!

〈주말 출발〉 항공 왕복 2박3일 큐슈여행 ♪ 기간:5.12~6.6

- 1.뱃부, 유후인, 아마가세 온천편견 1인 ₩499,000~
- 2.뱃부, 유후인, 일본 전통료칸 1인 ₩699,000~
- 3.기타큐슈, 야마구치, 시모노세키 1인 ₩699,000~
- 4.기타큐슈, 가라츠, 우레시노 1인 ₩699,000~

〈평일 출발〉 선박+항공으로 떠나는 큐슈여행 ♪

- 1.(매주 수요일 출발) 선박+항공 북큐슈 3일 1인 ₩299,000~
- 2.(매주 화요일 출발) 선박+항공 북큐슈 4일 1인 ₩399,000~

★불포함사항 : 기사, 가이드 경비(₩30,000/인), 국내수송(₩35,000/인)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NAVER** **조이투어** 검색

**조이투어** JOY TOUR CO.,LTD TEL:062-234-3222 FAX: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대표이사 최금환

여행권비1인 기준, 여행저보험 가입,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항공 및 전철/버스 / 상의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영업보증보험 가입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